

사회 신조어로 본 2030세대

7포부터 이케아·달관 세대까지 '웃픈' 청춘에 희망을 주려면

이케아(IKEA)세대, 취업깡패, 5포·7포 세대, 달관세대... 장기불황으로 공공...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이케아(IKEA)세대, 취업깡패, 화석세대, 5포세대, 빨대족, 달관세대, 취업 9종 세트 등...

'이케아(IKEA) 세대'는 뛰어난 스펙을 갖췄지만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이케아는 실용적이고 세련됐지만 저렴한 가격의 가구 전문 브랜드다.

'취업깡패'는 다른 학교보다 취업이 잘 되는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예전에는 경영학과가 취업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면 몇 년 전부터는 공대생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 전까지 학생 신분은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뤄가며 학교를 오래 다니는 고학번 선배들이 '화석'으로 비유되고 있다. 새내기 입장에서는 고학번 학생들이 오래된 조상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로 삼촌, 시조, 고려청자 등으로도 불린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 다섯 가지를 포기하는 '5포세대'도 늘고 있다. 사람인의 자체 조사 결과 20·30대 10명중 6명(57.6%)은 이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30대가 넘어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기대어 살아가거나 아예 부모의 노후 자금까지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자녀를 비꼬아 '빨대족'이라고 부른다.

웃지 못할 2030세대 신조어

이케아(IKEA)세대 | 뛰어난 스펙을 갖췄지만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이케아는 실용적이고 세련됐지만 저렴한 가격의 가구 전문 브랜드다.

달관 세대 |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서 시작된 말로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한다.

고통을 안아줄 프로그램 필요 훌륭한 전문가 양성도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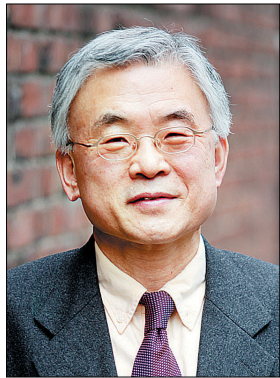
시작된 말로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한다.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면서 인생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미 좌절한 청년들이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신조어들은 2030세대의 '웃픈'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준다. 또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취업과 진로 등 '가치 추구'에 대한 매진이다. 이들에 대한 포교도 '가치 추구'의 욕구를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부장 송목 스님은 "지금 2030세대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주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찰과 스님이 열려 있어야 하며, 이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시설과 실질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지도자 양성도 필수 요소"라며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명상센터 운영 또한 중대안으로 구본사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 불자 부족은 기성 불자의 책임"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청년들을 불자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 기성 불자들의 책임입니다. 청년불자들을 위해 참된 스승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용준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상지영서대 교수)은 13·14·15대 교불련 회장 재직시 대학생 포교에 관심을 갖고 지도교수들의 활동을 장려했다. 최 명예회장은 청년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도교수를 비롯한 이끌어 주는 스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청년들은 불교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토익, 취업특강 등에 있어 진로와는 별개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을 불교로 끌어오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끌어주고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멘토역할이 필요합니다. 불교 안에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최 명예회장은 "교수들조차 사심 각자의 연구·강의활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털어놓는다"며 "하지만 불자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이타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명예회장은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불자 법조인을 멘토로, 제빵사를 원하는 청년에게는 제빵업에서 일하는 불자들을 멘토로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마음 쉴 곳'이 필요하다



청년불자 이치훈 뉴아더스 대표

"불교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가진 화두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우YB 회원 이지훈 씨는 서울대 재학 당시 학교 근처 성불암 법찬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20대 초반 신행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지만 부모님 외에는 길을 일러주는 이가 없었다"며 "마음공부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수행·신행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불교는 이 통로가 부재되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바쁨에 익숙해지며 채우고, 쌓고 또 쌓는 데에만 치중하게 된다"며 "이 상 아닌 '현실'로 청년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가진 화두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사찰과 중대 내 운영되

고 있는 청년회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회에 소속되면 중대와 사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며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 얘기를 들어줄 곳'과 '내 마음이 쉴 곳'이 더욱 필요하다.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인 4색 청년포교 현장에서 듣다

2030 세대는 고달프다. 일선 포교 현장에서 이들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또한 같은 세대로서 함께 호흡하고 불법을 전하는 20, 30대도 있다. 기성세대부터 2030세대까지 이들이 바라보는 청년 포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신성민·노덕현·박아름 기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해주세요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방학에도 쉴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계절학기, 어학연수 등 1, 2학년은 좀 관찮은데 3, 4학년은 당장 현실에 직면하죠."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은 요즘 대학생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 내외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생각하기에는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다. 기존 포교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숫자에

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교 방식을 보면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포교는 한 사람이 불교적 인자로 변화하는 데 중심을 뒀어야 합니다. 청년 포교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 회장은 종교가 현재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것은 자신에게 지남(指南)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종교가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20대는 취업과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같은 고민 안에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합니다. 취업과 진로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방향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30세대의 포교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콘텐츠 개발도 불교계에 요구하는 부분이다.

"힐링 콘텐츠로 청년에게 다가가야"



육군 5사단 여정 강 건 육 법사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 포교도 이제 옛 말입니다. 힐링콘텐츠로 청년 불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군포교 현장에서 SNS를 통한 데일리 법문과 락밴드 등을 통한 신세대 포교에 나서고 있는 여정 강건육 법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도 비종교인들이 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 법사는 "예전과 달리 군 내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종교행사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생활관마다 스카이라이프 등 케이블 방송이 들어오며, 예전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찾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이어 "최근의 종교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늘며 청년세대들에게 더욱 종교를 멀리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며 "기성세대가 무감각한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불교

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결국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를 컨트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며 "불교가 가진 강점은 마음 수행에 있기에 이런 부분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법사는 끝으로 "군에서 장병들이 자존감이 많이 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이는 최근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Jikjisa (직지사) featuring a temple scene and text: '조실 영허 회주 혜창 주지 흥선 사부대중 일동'.

Advertisement for Donghwas (동화사) featuring a Buddha statue and text: '부처님 오신날 평화로운 마음 · 향기로운 세상'.